

# 민간단체와의 협동에 의한 복지 향상

요코하마시 어린이 청소년국장

코이부치 신야

#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간단체와의 협동

- 일본에서는 의료보험과 연금, 개호보험, 생활보호 등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신변 가까운 복지 과제에 대하여는 민간단체 활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많으며, 지자체는 그러한 민간 활동을 발굴하고, 유효한 것이라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의 활동에서 지자체 · 정부의 제도로

제 1 단계 민간단체에 의한 선구적인 복지 활동이 시작



제 2 단계 일부 지자체가 그 민간단체를 지원



제 3 단계 정부가 지원을 시작, 전국 지자체가 관여

# 지자체 입장에서 본, 민간단체와 협동의 메리트

1 니즈(needs)에 민감하여 유연하게 대응한다.

*니즈가 있는 시민과 접한 현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2 동기베이션이 높고, 비즈니스 노하우가 있다.

*활동에 목적의식이 강하고, 비즈니스 센스와 노하우가 있다.*

3 코스트 퍼포먼스가 높다.

*공적 비용만이 아닌, 봉사활동 능력과 기부금등도 적절히 조합가능*

# 민간단체 입장에서 본, 지자체와 협동의 메리트

- 1 보조금 수입으로 봉사 활동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 활동 인력을 늘릴 수 있어,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 3 공적 비용을 활용하여 저소득 시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요코하마에서의 협동 사례 소개 1

## 대기아동 제로(zero) 실현 - 민간기업과도 연대한 보육소 정비

대기아동대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2010년 4월 보육소등에 들어갈 수 없는 아동수는 1552명으로 전국 1위.

3년 만에 대기아동 제로(zero)에 !

하야시 시장이 2009년 8월에 취임하여,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소하는 방침이 세워졌다. 그 결과, 2010년부터 12년에 걸쳐, 3년간 144개원, 정원 약 1만명분의 보육소를 정비하고, 2013년 4월에 보육소등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동은 제로가 되었다.

대기아동제로 요코하마방식

- 비영리 단체 뿐 아니라, 기업에 의한 보육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
- 토지를 활용하고 싶은 지주와 보육소를 운영하고 싶은 법인 쌍방을 공모에 의하여 매칭
- 유치원에서도 11시간 보육을 실시(표준 4시간)
- 0 - 2세 어린이를 맡는 보육소를 요코하마시 단독사업으로 실시
- 보육소에 보내고 싶은 보호자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 27명 채용



**요코하마방식이라 불리며, 정부가 제도화함으로써 전국에 알려짐**

# 요코하마에서의 협동 사례 소개 2

## DV(가정내 폭력)에 대한 대처 - NPO법인 여성 · 인권센터 「스텝」

요코하마시와 협동하기 전에는。。。。

DV대책으로서 시민이 쉼터를 열지만, 안정된 수입이 없으며,  
중심적인 스텝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었음.

요코하마시와 협동함으로써。。。。

운영이 안정됨. 또한, 피해자지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

(예)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가해자가 참여하는 매주 그룹 카운셀링(유료)



반려에도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배워,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함으로써  
가정생활을 회복하는 커플도 생김.

# 요코하마에서의 협동 사례 소개 3

## 아동양호시설의 아동 자립지원 – NPO법인 브릿지 포 스마일

아동양호시설 입소자의 자립지원은 행정만으로는 어렵다...

아동양호시설 출신인 18세 청년이, 사회에서 자활하는 것은 곤란.  
그들이 직면한 사회적 편견과 고립, 경제적 빈곤에의 대응은  
행정서비스만으로는 곤란.

NPO법인 「브릿지 포 스마일」 과 연대함으로써...

기업경험자가 세운 NPO이므로, 비즈니스 매너 등 취업지원 노하우가 풍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모금도 능숙

- (예)
- 시설에 있는 고교생의 취직활동, 비즈니스 매너 교육지원
  - 시설출신자인 청년 상담, 네트워크 구축
  - 기부금에 근거한 장학금 제공
  - 식사가 제공되는 아파트 제공과 순회상담



민간과 행정의 연대지원으로, 사회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하는  
청년들이 배출됨.

# 요코하마에서의 협동 사례 소개 4

## 은둔형 외톨이 젊은이들의 자립 지원

### ○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젊은이들의 현상과 과제

일본에서는 약 20년 전 부터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젊은이들이 눈에 띄게 되었다.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서툴며,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고, 대체로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현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내에는 적어도 8000명은 있을 것이라고 추계되고 있다. 3~40대의 ‘은둔형 외톨이’도 늘어, 보호자의 고령화도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이 시급해 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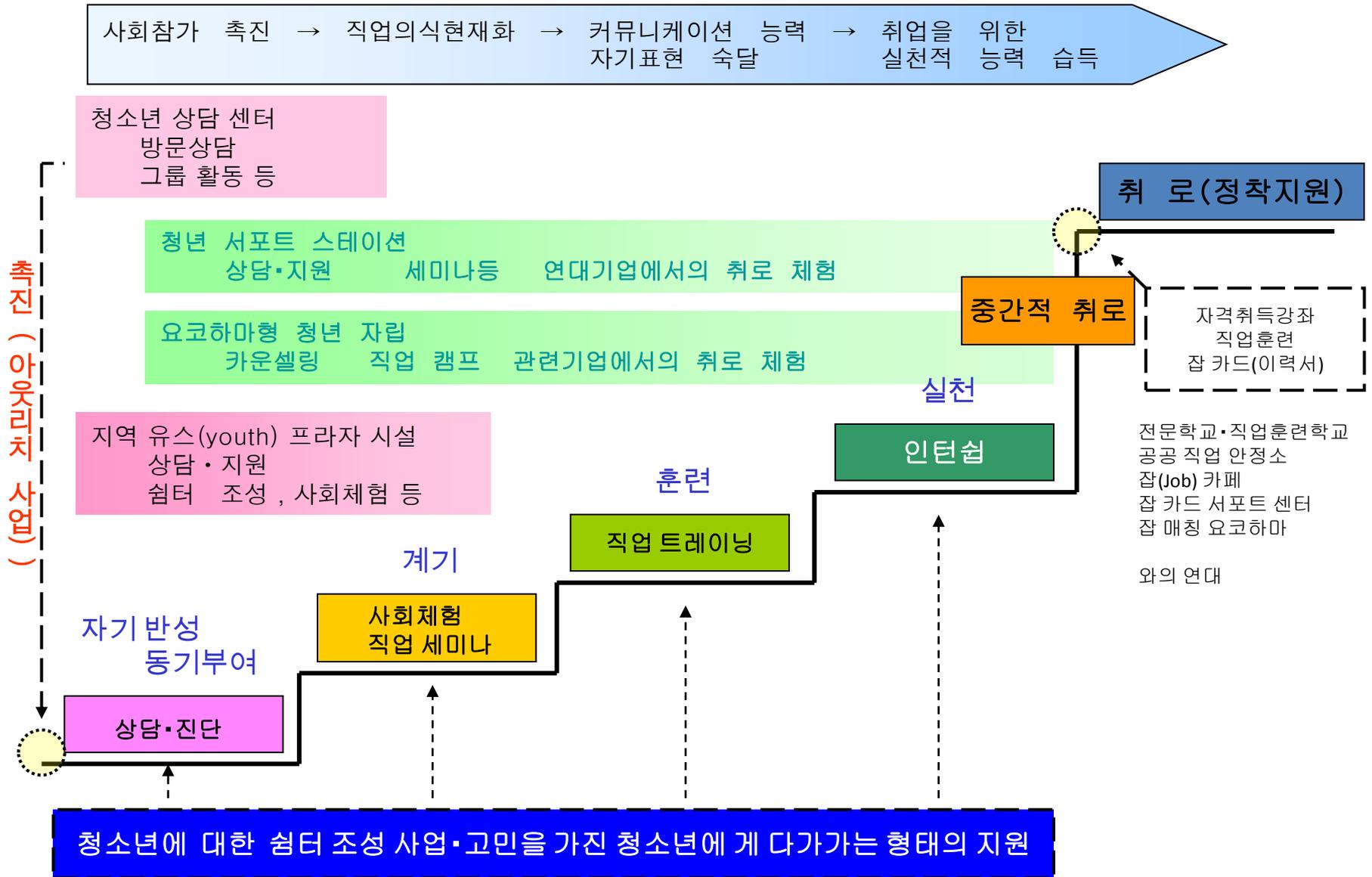
### ○ 민간과 행정의 자립지원 대처

당초, 민간단체가 대처를 시작해, 요코하마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기 시작함.

2010년에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 제정되어, 정부에 의한 본격적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 시작됨.

요코하마시도 민간과의 협동에 의하여, 선도적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시작함.

# 다음의 단계로 이어지는 요코하마형 생활·취로지원 커리어 사다리 구조



# 사회적 경제 코어(core)로서의 「중간적 취로」

## ○ 「중간적 취로」란。。。

일반적인 취로가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인 청년이라도, 사회적으로 고립하지 않고, 타인과의 만남과 동료와의 소통 가운데, 유급의 취로체험이나 트레이닝이 가능한 형태. 지역 사회 안에서 고용에 의한 사회적 안정망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 ○ 「중간적 취로」를 실현하는 청년지원단체로서의 K2 인터내셔널

스텝과 이용자가 공동생활을 하며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고치고, 인사하기, 대화, 식사를 함께 만들어 먹기 등 생활습관을 익히도록 함.

식당, 오코노미야키 가게, 포장마차, 학동 클럽(註), 농지 등 「중간적 취로」의 장을 다수 갖고 있음.

훈련을 위해 무급으로 일하는 단계부터, 아르바이트 및 취직을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단체 내에 보유함.

이용자가 스텝이 되는 경우도 많음.

(註) 학동 클럽 : 학동 보육을 행하는 지자체, 민간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시설.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이 방과후 귀가해도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보호자 등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보호하고, 학습이나 놀이를 원조하며 돌보는 시설. 보호자 등의 공동 관리로 운영되는 곳이 많음.